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Communication Style of Nursing Freshmen

박정원, 정유희
서일대학교 간호학과

Jeung-Weon Park(jw_park@seoil.ac.kr), You-Hee Jung(snowyvil@gmail.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으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주관성 유형을 파악하고,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 신입생 89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7일부터 2016년 9월 23일까지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의사소통 스타일은 PC-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의사소통 스타일별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의사소통 스타일은 '배려 공감형', '긴장 수동형', '예민 산만형', '촉진 주도형'의 4개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불안은 '긴장 수동형'과 '예민 산만형'이 '배려 공감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배려 공감형'이 '예민 산만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고려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인관계불안 감소 및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학생지도 지침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 중심어 : | 간호대학생 | 의사소통 스타일 | 대인관계불안 | 대학생활적응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of subjectivity on communication styles of nursing freshmen by using the Q Methodology, and exam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communication styles. Participants were 89 nursing freshmen,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7. March to 23. September 2016. Data were analyzed by using PC-QUANL program for communication styles, an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with SPSS windows version 24.0 program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communication styles. As a result, 4 communication styles were identified, 'Considerate-empathetic', 'Tense-passive', 'Vulnerable-easily distracted', and 'Facilitative-leading'. 'Tense-passive', 'Vulnerable-easily distracted'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than 'Considerate-empathetic'. 'Considerate-empathetic' showed significantly higher college adjustment than 'Vulnerable-easily distra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for developing communication educational programs and provide a foundation to improve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freshmen.

■ keyword : | Nursing Students | Communication Style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 College Adjustment |

* 본 연구는 2018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08월 21일

수정일자 : 2018년 09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9월 19일

교신저자 : 정유희, e-mail : snowyvil@gmail.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간호사와 간호대상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과정으로[1], 간호사는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의 핵심 역량으로, 대학은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간호학생이 졸업시점에 치료적 의사소통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2][3].

간호학생의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교육이 달성해야할 주요 학습성과로서[3], 그동안 관련 변수와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대한 양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4]. 그러나 의사소통 행위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습득하는 주관적인 경험으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간호학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저자들은 Q 방법론으로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탐색하였고 그 결과 ‘개방적교류 촉진형’, ‘타인배려 경청형’, ‘비관예민 긴장형’, ‘교류회피 관찰형’ 등 4개로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한 바 있다[5]. 이후 학생지도과정에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학 또는 자퇴하는 학생들이 주로 ‘비관예민 긴장형’이나 ‘교류회피 관찰형’ 의사소통 스타일에 속하고, 교우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대인관계불안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인관계불안은 타인에게 노출되는 현실 또는 상상적인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적 평가가 실재하거나 예상될 때 나타나는 불안으로[6], 높은 대인관계불안은 의사소통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며[5], 학과적응 및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는 임상실습현장에서 다양한 간호대상자 및 의료진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므로 대인관계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 나갈 수 있도록 임상실습현장에 노출되기 전인 신입생 시점부터 대인관계불안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체계적으로 돕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은 대인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원만한 대인관계는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향후 간호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9]. 이에 간호교육과정의 기초 및 전공과목에는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성과가 포함되어 있다[3]. 간호대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학습성과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신입생 시기부터 의사소통 스타일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5]. 근래 간호학 전공에 대한 적성보다는 높은 취업률만을 고려하여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신입생 시기의 간호대학생들은 낮은 환경과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0]. 따라서 신입생 시기부터 의사소통 스타일을 미리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학생들이 간호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임상실습을 포함한 간호교육과정을 잘 이수하도록 도와야 하겠다.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 성취는 물론 주변인들과의 대인관계 형성 등 새롭고 다양한 경험에 대처해 나가며 대학환경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11], 그동안 관련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어왔다.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 있는 요인들로는 전공만족도[12], 학업성취도[13] 감성 지능[14], 정서지능[15], 행동유형[16], 스트레스 대처[17], 자아탄력성[14], 심리적 안정감[18], 대인관계[19], 의사소통 유형[17] 등이 보고되었다. 이난희와 유소연[17]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사티어의 일치형,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스타일로 구분하여 양적으로 연구한 결과 기능적인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 집단이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렇게 의사소통 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 되었으나, 의사소통 시 개인의 독특한 특성과 경험을 반영하여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의 연관성을 살펴

본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심전숙과 방미란의 연구[19]에 의하면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인관계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성 및 대인관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필수요소인 대인관계능력은 대인관계불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7] 대인관계불안은 의사소통 스타일에도 상호맥락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바[5],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을 동시에 파악하여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에게 내재된 주관성을 표현함으로써 외적으로 감지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객관화할 수 있는 Q 방법론[20]을 적용하여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확인하고, 조사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라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인관계불안 감소 및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학생지도지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의 주관성을 파악하고,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라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주관성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확인한다.
- 2)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인관계불안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Q 방법론과 서술적 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Q 방법론을 통해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의 주관성을 탐구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비교 조사 연구 방법을 통해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여,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라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2. 연구 대상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소재 일대학 간호학과 신입생 112명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이다. 연구 참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약 6개월 후 추가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익명성 보장과 중도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설명한 모든 내용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음료상품권을 제공하였다.

1차 자료 수집은 2016년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로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은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1 의사소통 스타일 파악을 위한 Q 방법론 적용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하여 Q 표본은 본 저자들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 파악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총 55개의 진술문을 사용하였다[5]. Q 표본은 의사소통 스타일의 하위 차원으로 효율성, 주도성, 자기노출, 타인이해, 수용 및 존중, 비언어적 표현 등을 반영하고 있는 총 55개의 진술문으로서, 각 진술문들은 각 차원을 대표하면서 긍정, 중립, 부정적 표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다.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대일로 연구 참여자에게 Q 분류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1단계로 진

술문이 각각 하나씩 적힌 55개의 카드를 차례로 읽으면서 주관적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동의(+), 중립(0), 비동의(-)의 세 영역으로 카드를 분류하게 하였다. 2단계에서는 동의(비동의)한 진술문 중 '가장 동의(비동의)' 하는 진술문을 골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재분류하도록 하여 중립(0) 부분에서 종결하도록 하였다. 즉, 동의 +5에 2개, +4에 3개, +3에 4개, +2에 6개, +1에 8개, -5에 2개, -4에 3개, -3에 4개, -2에 6개, -1에 8개씩, 마지막으로 중립(0)에 9개로 강제 분포하도록 분류하였고 이를 점수화하였다. 개인별 Q 분류 및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2.2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 설문조사

2차 자료 수집은 1차에 참여하였던 학생 112명 중 휴학 및 자퇴한 학생 9명과 추가 자료 수집에 불참한 6명 등 15명이 탈락하여 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100%였으나 불성실한 응답과 중복표기 등의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최종 8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3.1 대인관계불안

대인관계불안은 실제적 혹은 상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적인 평가가 존재하거나 예상될 때 나타나는 불안을 의미하며[6], 본 연구에서는 Leary[6]가 개발한 대인관계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IAS)를 김남재[21]가 번안한 한국판 IAS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총 15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3.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tryk[11]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 SACQ)를 권혜진[22]이 번안하여 5점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

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생들이 수업, 과제, 시험 등의 학업과 관련된 동기, 시간관리, 학업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만족감 등을 측정하는 학업적응(Academic Adjustment: AA) 24문항,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인관계 및 학업 외 활동 등의 사회적 관계에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적응(Social Adjustment: SA) 16문항,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적 불편감과 문제점을 측정하는 개인-정서적응(Personal-emotional Adjustment: PA) 17문항, 대학생 개인이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애착과 호감 및 학교에 대한 유대감을 측정하는 대학환경적응(Institutional Adjustment: IA) 10문항으로 총 67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값은 전체 척도가 .94, 하위척도는 .73~.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척도 .95, 하위척도는 .85~.92였다.

4. 자료분석방법

1차 조사에서는 89명의 P 표본이 분류한 Q 표본인 55개의 진술문들을 가장 비동의 하는 항목(-5)을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0)은 6점, 가장 동의하는 항목(+5)은 11점으로 변환시켜 코딩하였다. 이를 PC-QUANL program에 입력한 후 Varimax factor loading 회전법과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 스타일은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최적의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아이겐값(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적합한 문항 선정을 위해 Z-score를 이용하였다.

2차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특성과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인관계불안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 검정은 최종 인원이 89명이므로 비교하려는 각 집단별 인원이 30명 미만이면,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이용

하였을 때 분석하려는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비모수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비교집단이 두 군인 경우 Mann-Whitney U test, 세 군 이상인 경우는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PSS Win 24.0에서 제공하는 대응비교(Pairwise comparison)로 시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스타일

1.1 Q 유형분석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호대학 신입생 89명의 의사소통 스타일은 요인 4가지로 분류되었고 유형1은 36.5%, 유형2는 7.0%, 유형3는 5.1%, 유형4는 3.5%의 설명력 나타내고 있어 네 가지 유형이 전체 변량의 52.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표본 89명 중 28명이 유형1, 29명이 유형2, 13명이 유형3, 19명이 유형4로 분류되었다[표 1].

표 1. 유형별 아이겐값과 설명변량 및 인원수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아이겐값	32,449	6,260	4,492	3,123
변량	.365	.070	.051	.035
누적변량	.365	.435	.486	.521
인원수(명)	28	29	13	19

1.2 Q 유형분석

Q 유형은 다수의 Q 방법론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 2명과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을 7년 이상 강의한 교원 2명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배려 공감형', '긴장 수동형', '예민 산만형', '축진 주도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별로 가장 동의 또는 가장 비동의 하는 것으로 선택한 진술문 중에서 Z-score(표준점수)가 ± 1.00 이상인 항목들과 함께 각 유형별로 타 유형과 Z-score 차이가 ± 1.00 이상인 항목들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1.2.1 유형1: 배려 공감형

전체 대상자 89명 중 28명이 유형1로 분류되었고 여학생 27명, 남학생 1명이었다. 유형1은 전체 변량의 36.5%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한 동의와 비동의 항목을 살펴보면[표 2], 유형1은 의사소통 시 얼굴 표정이나 몸짓, 적절한 눈 접촉을 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야기에 집중하고, 대화 중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등 배려하고 경청하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하는 유형이다. 또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거나 무시, 비난, 책망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를 노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타인에게 공감하는 의사소통 스타일이다.

다른 유형과 차이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2], 다른 유형에 비해 대화중에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상대방에게 동의하지 않는 등 솔직하면서도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유형1은 비언어적 메시지를 잘 활용하여 경청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이해하는 유형으로서 공감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배려 공감형'이라고 명명하였다.

1.2.2 유형2: 긴장 수동형

전체 대상자 89명 중 29명이 유형2로 분류되었고 여학생 25명, 남학생 4명이었다. 유형2는 전체 변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한 동의와 비동의 항목을 살펴보면[표 3], 유형2는 다른 사람과 대화 시 주로 듣는 편으로서, 이야기에 집중한다. 또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매우 긴장하며,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기회가 될 때 말하고, 대화중에 상대방의 잘못을 즉각 시정하는 행동을 잘 못하고, 손이나 어깨를 만지는 것과 같은 비언어적 접촉을 하지 않는 등 긴장이 높고 조심스런 의사소통을 한다. 또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거나 무시, 비난, 책망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로 막거나 끼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형1에서 강한 동의, 비동의를 보인 항목과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번호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51	나는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도 한다.	1,83		
3	나는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1,66		
1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1,66		
47	나는 적절하게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1,56		
4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1,49		
52	나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1,30		
5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	1,26		
26	나는 자주 농담하거나 대화에 유머를 풀어 넣는다.	1,19		
46	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로 뿐 아니라 행동(얼굴표정이나 의미 있는 몸짓의 사용)을 통하여 나타낸다.	1,19		
번호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17	나는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로 막는다.	-1,39		
40	나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한다.	-1,49		
7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편이다.	-2,00		
16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2,00		
43	나는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 한다.	-2,02		
8	나는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다.	-2,14		
번호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타유형	차이
5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	1,26	.19	1,07
16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2,00	-.89	-1,11
36	나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과 달리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	-.46	.95	-1,41

표 3. 유형2에서 강한 동의, 비동의를 보인 항목과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번호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30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듣는 편이다.	2,01		
1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1,95		
34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매우 긴장한다.	1,64		
22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기회가 될 때 말한다.	1,32		
3	나는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1,20		
2	나는 대화하는 상대를 동등하게 대한다.	1,14		
51	나는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도 한다.	1,06		
12	나는 다른 사람의 견해, 의견 및 조언을 구한다.	1,02		
번호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50	나는 대화 시 상대방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접촉을 한다.	-1,07		
29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1,27		
43	나는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 한다.	-1,63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끼여든다.	-1,65		
17	나는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로 막는다.	-1,86		
7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편이다.	-1,93		
8	나는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다.	-2,13		
번호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타유형	차이
34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매우 긴장한다.	1,64	-.46	2,10
30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듣는 편이다.	2,01	.01	2,00
33	나는 대화 시 머뭇거리다.	.56	-.93	1,49
35	나는 쉽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목소리가 떨린다.	.85	-.61	1,46
38	내 감정을 숨기며 얼굴 표정을 관리한다.	.95	-.49	1,44
39	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한다.	.81	-.28	1,09
50	나는 대화 시 상대방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접촉을 한다.	-1,07	.18	-1,25
44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낸다.	-.71	.54	-1,25
26	나는 자주 농담하거나 대화에 유머를 풀어 넣는다.	.26	1,53	-1,27

다른 유형과 차이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3], 유형2는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매우 긴장하고 주로 듣는 편이다. 또 손이나 어깨 접촉을 꺼리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하는 등 다른 유형에 비해 자기노출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형2는 의사소통 시 긴장하고 수동적인 유형으로 ‘긴장 수동형’으로 명명하였다.

1.2.3 유형3: 예민 산만형

전체 대상자 89명 중 13명이 유형3으로 분류되었고 여학생 11명, 남학생 2명 이었다. 유형4는 전체 변량의 5.1%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한 동의와 비동의 항목을 살펴보면[표 4], 유형3은 타인의 비평에 민감하고 쉽게 감정을 상한다. 적절하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 의견 및 조언을 구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텔레비전 소리나 지나가는 사람 등 주변 자극에

신경을 쓴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 대화중에 생각이 뒤죽박죽으로 정리가 안 되고, 논리 정연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의사소통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유형과 차이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4], 유형3은 다른 유형에 비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아다시피’ 등 상투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쓰며 비평에 민감하고 쉽게 감정을 상한다. 또 대화 주제를 갑작스럽게 바꾸기도 하고,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또박또박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도 않다. 대화 시 가끔 대화 내용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주변 자극에 신경을 쓰는 등 산만하다. 따라서 유형3은 타인의 비판에 예민하고 쉽게 감정을 상하며 의사소통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관성과 논리성이 부족하고,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산

표 4. 유형3에서 강한 동의, 비동의를 보인 항목과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번호	한 동의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32	나는 비평에 민감하고 쉽게 감정을 상한다.	2.13		
47	나는 적절하게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1.98		
12	나는 다른 사람의 견해, 의견 및 조언을 구한다.	1.35		
3	나는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1.25		
55	나는 대화 도중 텔레비전 소리나 지나가는 사람 등 주변 자극에 신경을 쓴다.	1.23		
36	나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과 달리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	1.22		
27	나는 대화중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 해진다.	1.04		
번호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20	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고 분명하다.	-1.21		
23	나는 또박또박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한다.	-1.33		
21	나는 일관성 있게 말한다.	-1.53		
8	나는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다.	-1.65		
14	나는 대화중에 남의 잘못은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해 준다.	-1.80		
7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편이다.	-1.97		
22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2.02		
번호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타유형	차이
16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17	-1.62	1.79
53	나는 ‘있잖아요’, ‘당신이 아다시피..’ 등 상투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쓴다.	.77	-.86	1.63
32	나는 비평에 민감하고 쉽게 감정을 상한다.	2.13	.57	1.56
15	나는 대화중에 주제를 갑작스럽게 바꾼다.	.73	-.70	1.43
27	나는 대화중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 해진다.	1.04	-.37	1.41
55	나는 대화 도중 텔레비전 소리나 지나가는 사람 등 주변 자극에 신경을 쓴다.	1.24	.17	1.07
13	나는 가끔 대화 내용과 상관없는 말을 한다.	.76	-.25	1.01
1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49	1.72	-1.23
23	나는 또박또박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한다.	-1.33	-.05	-1.28
20	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고 분명하다.	-1.21	.27	-1.48
21	나는 일관성 있게 말한다.	-1.53	.01	-1.54
22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2.02	-.36	-1.66

만한 의사소통을 하는 유형으로 ‘예민 산만형’이라고 명명하였다.

1.2.4 유형4: 촉진 주도형

전체 대상자 89명 중 19명이 유형4로 분류되었고 여학생 17명, 남학생 2명 이었다. 유형3은 전체 변량의 3.51%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한 동의와 비동의 항목을 살펴보면[표 5], 유형4는 자주 농담하거나 대화에 유머를 붙여 넣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로 뿐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의미 있는 몸짓 등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나타낸다.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기분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안이나 정보 제공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화를 촉진한다. 또 강압적이지 않고 대화중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며,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 하지 않고,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거나

무시하지 않고 잘 듣고 반응한다. 또한 대화 시 긴장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쉽게 흥분하거나 격앙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얼굴이 빨개지거나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 등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의사소통한다.

다른 유형과 차이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5], 유형4는 제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먼저 대화를 주도하고, 자주 농담하거나 대화에 유머를 붙여 넣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며 얼굴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행동을 잘 사용하며, 대화할 때 긴장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쉽게 격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논리 정연하며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을 주도하고 촉진하는 유형으로 ‘촉진 주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80(89.9%), 남학생이 9(10.1%)이었고, 평균 연령은

표 5. 유형4에서 강한 동의, 비동의를 보인 항목과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번호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26	나는 자주 농담하거나 대화에 유머를 붙여 넣는다.	2.18		
46	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로 뿐 아니라 행동(얼굴표정이나 의미 있는 몸짓의 사용)을 통하여 나타낸다.	1.92		
1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1.55		
47	나는 적절하게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1.54		
45	나는 대화 시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1.51		
28	나는 제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먼저 대화를 주도한다.	1.21		
4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1.11		
51	나는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도 한다.	1.06		
3	나는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1.03		
번호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17	나는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로 막는다.	-1.22		
53	나는 ‘있잖아요’, ‘당신이 알다시피..’ 등 상투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쓴다.	-1.27		
33	나는 대화 시 머뭇거리다.	-1.27		
16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1.32		
14	나는 대화중에 남의 잘못된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해 준다.	-1.32		
35	나는 쉽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목소리가 떨린다.	-1.54		
7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편이다.	-1.56		
31	나는 말할 때 쉽게 흥분되어 격앙되거나 목소리를 띤다.	-1.56		
43	나는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 한다.	-1.64		
8	나는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다.	-2.18		
번호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표준점수	타유형	차이
28	나는 제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먼저 대화를 주도한다.	1.21	-.12	1.33
26	나는 자주 농담하거나 대화에 유머를 붙여 넣는다.	2.18	.89	1.28
22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12	-1.07	1.19
46	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로 뿐 아니라 행동(얼굴표정이나 의미 있는 몸짓의 사용)을 통하여 나타낸다.	1.92	.76	1.16
31	나는 말할 때 쉽게 흥분되어 격앙되거나 목소리를 띤다.	-1.56	-.47	-1.09
34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매우 긴장한다.	-.79	.34	-1.13
35	나는 쉽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목소리가 떨린다.	-1.54	.19	-1.73

18.91(±.67)세였으며 82(92.1%)명의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 86.5%,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 13.5%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한 경우가 41.5%, 적성을 고려한 지원이 13.5%,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인의 추천으로 지원한 경우가 31.5%, 간호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 때문에 지원한 경우가 13.5%이었다. 입학 후 한 학기 동안의 성적은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9.1%, 중위권 55.1%, 하위권 25.8%이었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불안의 평균 점수는 3.02±.63점이었고 대학생활적응의 전체의 평균 점수는 3.30±.47점 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의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학업적응이 3.13±.56점, 사회적응이 3.32±.49, 개인-정서적응이 3.33±.57점, 대학환경적응이 3.62±.72점으로 나타났다.

표 6.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N=89)

특성	구분 or 최소/최대	N(%) or M±SD
성별	여 남	80(89.9) 9(10.1)
연령(세)	18~21	18.91±.67
가족과 동거	예 아니오	82(92.1) 7(7.9)
출신 고교	인문계 실업계	77(86.5) 12(13.5)
지원동기	취업고려 적성 타인 권유 간호사 이미지	37(41.5) 12(13.5) 28(31.5) 12(13.5)
학업성적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17(19.1) 49(55.1) 23(25.8)
의사소통 스타일	타인 공감형 긴장 수동형 예민 산만형 논리 주도형	28(31.5) 29(32.6) 13(14.6) 19(21.3)
대인관계불안	1.33 ~ 4.60	3.02±.63
대학생활적응	2.03 ~ 4.45	3.30±.47
학업적응	1.75 ~ 4.58	3.13±.56
사회적응	1.50 ~ 3.56	3.32±.49
개인-정서적응	1.82 ~ 4.65	3.33±.57
대학환경적응	2.00 ~ 5.00	3.62±.72

3.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인관계불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불안은 [표 7]과 같다.

표 7.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인관계불안 (N=89)

특성	구분	대인관계불안	
		M±SD	U or χ^2 (p)
성별	여	3.04±.61	342.50 (.812)
	남	2.96±.80	
가족과 동거	예	2.86±.63	174.50 (.086)
	아니오	2.70±.52	
출신 고교	인문계	3.02±.63	454.00 (.923)
	실업계	3.08±.62	
지원동기	취업고려	3.06±.53	4.30 (.231)
	적성	2.71±.66	
	타인 권유	3.11±.66	
	간호사 이미지	3.07±.75	
학업성적	상위권	2.81±.79	1.23 (.541)
	중위권	3.09±.60	
	하위권	3.05±.53	
의사소통 스타일	배려 공감형 ^a	2.75±.63	12.28 (.006) a<b, c
	긴장 수동형 ^b	3.27±.51	
	예민 산만형 ^c	3.30±.66	
	촉진 주도형 ^d	2.89±.57	

^aKruskal-Wallis test & Pairwise comparison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marked a, b, c and d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불안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인관계불안 정도는 유형2 긴장 수동형과 유형3 예민 산만형이 유형1 배려 공감형에 비해 대인관계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6).

4.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학생 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표 8]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p=.019), 타인의 권유에 의해 입학한 경우에 비해 적성을 고려해 입학한 경우가(p=.013), 학교 성적이 하위권에 비해 상위권과 중위권이(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의 하부 영역별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 변수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학업적응 정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p=.018),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보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p=.045), 타인의 권유에 의해 입학한 경우보다 적성을 고려해 입학한 경우(p=.036), 학업성적이 높을수록(p<0.01) 통계적으로 유

표 8.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N=89)

특성	구분	대학생활적응									
		총점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M±SD	U or χ^2 (p)	M±SD	U or χ^2 (p)	M±SD	U or χ^2 (p)	M±SD	U or χ^2 (p)	M±SD	U or χ^2 (p)
성별	여 ^a	3.25±.46	532.00 (.019)	3.08±.54	533.00 (.018)	3.29±.47	509.50 (.042)	3.30±.57	479.50 (.104)	3.57±.71	526.00 (.240)
	남 ^b	3.68±.50		3.57±.55		3.61±.61		3.62±.50		4.11±.64	
가족과 등거	예	3.29±.47	291.00 (.951)	3.13±.56	257.50 (.653)	3.31±.48	327.50 (.536)	3.32±.56	305.50 (.778)	3.62±.70	296.00 (.891)
	아니오	3.33±.52		3.09±.55		3.44±.60		3.40±.65		3.61±.95	
출신 고교	인문계 ^a	3.32±.48	336.00 (.130)	3.17±.55	295.00 (.045)	3.31±.51	484.00 (.787)	3.36±.57	343.00 (.152)	3.63±.74	426.50 (.669)
	실업계 ^b	3.14±.40		2.85±.50		3.37±.36		3.13±.53		3.58±.61	
지원동기	취업고려 ^a	3.32±.42	10.80 (.013)	3.13±.46	8.57 (.036)	3.35±.53	.78 (.854)	3.41±.44	9.98 (.019)	3.56±.36	10.56 (.014)
	적성 ^b	3.59±.39		3.48±.56		3.36±.38		3.66±.57		4.05±.47	
	타인 권유 ^c	3.10±.50		2.93±.63		3.25±.47		3.07±.59		3.37±.80	
	간호사 이미지 ^d	3.40±.50		3.22±.56		3.34±.52		3.36±.64		3.95±.70	
학업성적	상위권 ^a	3.60±.47	18.75 (.001)	3.60±.52	28.76 (.001)	3.44±.46	1.32 (.517)	3.56±.57	11.42 (.003)	3.89±.75	8.95 (.011)
	중위권 ^b	3.35±.41		3.18±.45		3.31±.46		3.41±.52		3.70±.66	
	하위권 ^c	2.96±.43		2.66±.43		3.25±.56		2.99±.53		3.24±.68	
의사소통 스타일	배려 공감형 ^a	3.48±.43	7.98 (.046)	3.31±.49	4.21 (.240)	3.49±.41	7.36 (.061)	3.51±.55	7.96 (.047)	3.84±.63	5.09 (.165)
	긴장 수동형 ^b	3.21±.46		3.09±.46		3.17±.44		3.26±.47		3.49±.76	
	예민 산만형 ^c	3.05±.62		2.89±.72		3.20±.68		2.96±.64		3.38±.79	
	촉진 주도형 ^d	3.32±.46		3.08±.56		3.37±.45		3.42±.57		3.68±.68	

^a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 Pairwise compariso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marked a, b, c and d

의하게 높았다. 사회적응 정도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p<.04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은 타인의 권유에 의해 입학한 경우보다 적성을 고려해 입학한 경우($p=.019$), 학업성적이 하위권보다 상위권인 경우($p=.003$)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환경적응 정도는 타인의 권유에 의해 입학한 경우보다 적성을 고려해 입학한 경우($p=.014$), 학업성적이 하위권보다 상위권인 경우($p=.011$)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유형1 배려 공감형이 유형3 예민 산만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46$). 하위 영역 중 개인-정서적응 정도에서 유형1 배려 공감형과 유형4 촉진 주도형이 유형3 예민 산만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47$).

IV. 논 의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은 4개 요인으로 배려 공감형, 긴장 수동형, 예민 산만형, 촉진 주도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1 배려 공감형은

정청과 비언어적 능력, 공감능력이 우세하고, 유형4 촉진 주도형은 논리정연하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주도하는 등 치료적 의사소통의 '효율성, 주도성, 자기노출, 타인이해, 수용 및 존중, 비언어적 표현' 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1은 공감 능력이 우세하고 유형4는 효율적이고 주도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우세한 것이 특징으로 치료적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유형이라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 달리 유형2 긴장 수동형은 의사소통 시 긴장이 높고 상대방을 반응을 살피며 주로 듣는 유형으로 의사소통 불안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3 예민 산만형은 생각이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쉽게 산만해지고, 대화 시 일관성, 논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여 상처를 잘 받는 유형으로 대인관계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불안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02점이었다. 최근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인관계불안을 조사한 연구가 많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 2, 3,

4학년의 대인관계불안을 측정한 연구[7]에서의 2.69점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가 새로운 환경인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는 원만한 대인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23],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은 대학생활적응뿐 아니라[7], 대상자 간호에 필수적 수단인 대인 의사소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4].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에서 낯선 간호대상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술기를 수행하는 등 실습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높은 대인관계불안은 학과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불안과 관련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추후 연구를 진행하여 대학생활적응 및 학과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30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대학환경적응(3.62)이 가장 높고 개인-정서적응(3.33), 사회적응(3.32), 학업적응(3.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조인영의 연구[25]에서의 전체 평균 점수 3.06점, 박현태의 연구[15]에서의 3.01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또한 하위영역 중 대학환경적응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26][2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가장 낮은 하위영역은 학업적응으로 선행연구들[15][26]과 일관된 결과로서 전원희 등[26]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서적응이 일부 다른 연구 결과[27][28]와 달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92%인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통학하고 있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상 부모와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40-60% 정도로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사회적, 정서적 지지가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행 연구에서도 부모님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10][2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보면,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타인의 권유에 의해 입학한 경우에 비해 적성을 고려해 입학한 경우가,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41.5%)과 주변인의 추천(31.5%)에 의한 것이 적성을 고려한 지원(13.5%)보다 월등히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간호학과 선택 시 적성보다는 용이한 취업과 타인의 권유에 따라 선택한 경우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17][19]. 본 연구 결과 적성을 고려해 입학한 경우에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18][26]. 전공에 대한 관심보다 높은 취업을 이나 타인의 권유 때문에 간호대학에 입학한 경우 학과부적응 및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자퇴 또는 전과하는 경우가 많다[24]. 또한 본 연구에서 성적이 중상위권인 경우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았는데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으로 갈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들과 일치한다[13][14][27]. 따라서 신입생 모집 시 적성과 진로결정 등 지원동기를 고려하고, 이후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대학생활적응 방안 마련 시에 개인의 생활환경 및 지역적 특성, 사회적지지, 지원동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인관계불안은 유형2 긴장 수동형과 유형3 예민 산만형이 유형1 배려 공감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화 시 긴장하고, 의사 표현이나 비언어적 접촉을 꺼려하고 주로 듣기만 하는 유형2 긴장 수동형과 타인의 비평에 민감하고 감정을 숨기며 표정을 관리하는 유형3 예민 산만형이 의사소통 시 불안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1 배려 공감형은 비언어적 메시지를 활용하고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노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솔직하고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는 유형으로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높은 의사소통 불안과 사회적 불안은 대인의사소통 능력에 부정적으로 영향하는 요인이다[24]. 따라서 유형2와 유형3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유형1 배려 공감형이 유형3 예민 산만형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하위 영역인 개인 정서 적응은 유형1 배려 공감형과 유형4 촉진 주도형이 유형3 예민 산만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을 조사한 연구는 드문 편으로, 이난희와 유소연[17]은 Satir의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이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박승미 등[27]은 간호대학생의 개인정서요인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등을 포함한 정서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산만하고 일관성, 논리성이 부족하고 타인의 비판에 예민한 유형3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에는 의사소통 기술 훈련에 더하여 정서관리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라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대학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편의표출하였으므로 결과를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개인별로 독특한 차이가 있는 주관적 특성을 탐색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 신입생의 유형별 의사소통의 강점과 약점을 맥락적으로 드러내어 기술하고, 의사소통 스타일별로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함으로써, 의사소통 스타일을 고려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인관계불안 감소 및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학생지도지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주관성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Q 방법론과 조사 연

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 스타일은 배려 공감형, 긴장 수동형, 예민 산만형, 촉진 주도형의 4개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라 대인관계불안은 긴장 수동형과 예민 산만형이 배려 공감형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배려 공감형이 예민 산만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이 대상이었으므로, 향후 졸업시점에 의사소통 스타일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힐 수 있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라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증진을 포함시킨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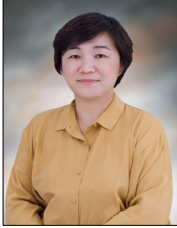
- [1] H. E. Peplau,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Psychodynamic Nursing*, New York: Springer Pub, 1991.
- [2] D. Sherrod, B. Sherrod, and T. Sherrod, "Expand your communication style," *Nursing*, Vol.39, Suppl Men, pp.18-21, 2009.
- [3] <http://www.kabon.or.kr/kabon02/index04.php>, 2018.05.11
- [4] 한미화, 이경희, "간호대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8-21, 2017.
- [5] 박정원, 정유희,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주관성 연구 : Q 방법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9호, pp.329-341, 2015.
- [6] M. R. Leary,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7, No.1, pp.66-75, 1983.
- [7] 박지현, 박진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 대

- 학생활적응, 자기통제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8권, 제1호, pp.185-194, 2017.
- [8] 안효자, 정복례,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 불안,”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24-228, 2006.
- [9] 박미정,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기초과학연구 논문집, 제21권, 제1호, pp.27-35, 2013.
- [10] 김재희, 장숙량, 지현진, 정경주, 서유진, 김진현, 최영순, “간호대학생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pp.6027-6035, 2015.
- [11]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pp.179-189, 1984.
- [12] 이지은, 광혜원,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조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활생활 적응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11호, pp.527-537, 2016.
- [13] 최지혜, 박미정,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339-349, 2013.
- [14] 고미숙,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적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 pp.280-291, 2015.
- [15] 박현태,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1576-1583, 2014.
- [16] 강희영, 최은영, “간호대학 신입생의 행동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89-297, 2015.
- [17] 이난희, 유소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20권, 제2호, pp.58-66, 2017.
- [18] 김은아, 박경임, “간호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호, 제2호, pp.234-243, 2014.
- [19] 심선숙, 방미란, “간호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pp.634-642, 2016.
- [20] W. Stephenson,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21] 김남재, “대인불안의 측정에 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14권, 제1호, pp.73-81, 1995.
- [22] 권혜진,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지각과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3] 오은지, 박순아,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94-102, 2016.
- [24] 박정원, 김근면, “간호대학생의 자의식과 의사소통 불안이 대인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스트레스학회지, 제19권, 제1호, pp.1-10, 2011.
- [25] 조인영,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2937-2945, 2014.
- [26] 전원희, 조명주, 나현주,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219-228, 2015.
- [27] 박승미, 김철규, 차선경, “간호대학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양면성, 정서조절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pp.300-311, 2014.
- [28] 박진아, 이은경,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3호, pp.267-276, 2011.

저 자 소 개

박 정 원 (Jeoung-Weon Park)

정회원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사)
- 1992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석사)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서일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간호, 의사소통

정 유 희 (You-Hee Jung)

정회원



- 1997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사)
- 2005년 8월 : 고려대학교 보건대
학원(보건학석사)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학
협동과정 박사수료

- 1997년 3월 ~ 2009년 3월 :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간
호사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겸
임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서일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관심분야> : 정신보건, 의사소통